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8년 4월 30일(월) (총 3쪽)	담당부서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윤경천 팀장(043-880-5821) 주철진 대리(043-880-5825)

앞바퀴 이탈 사고 발생한 마라톤 킥스쿠터 MA-01 무상수리

한국소비자원은 킥보드 제품 이용 중 앞바퀴 이탈로 인해 낙상하여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
 하는 시스템

확인결과, 해당 제품(마라톤 킥스쿠터 MA-01)의 앞쪽 서스펜션*과 앞바퀴의 고정부위가 주행 중 풀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면에서 발생한 충격이 탑승자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수입사(주)클라우드파이브와 판매사(신신스포츠)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된 제품(2017년 판매 650대)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동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킥보드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킥보드 관련 국내·외 안전관리 사례를 수집하여 안전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즉시 신신스포츠(☎ 02-2254-0091)에 연락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1 조사배경 및 내용

- (주)클라우드파이버가 수입, 신신스포츠가 판매하는 마라톤 킥스쿠터 MA-01 이용 중 앞바퀴가 이탈하여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피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함.
- 소비자는 낙상하여 오른쪽 발목에 상해(염좌)를 입음.
- 해당 제품을 살펴본 결과, 서스펜션과 앞바퀴의 고정부위가 주행 중 풀린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자 시정조치

- 판매사인 신신스포츠를 통해 동일 사례가 2건 추가 확인되는 등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신신스포츠에 시정을 권고함.
- (주)클라우드파이버·신신스포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7년에 판매된 제품(650대)을 대상으로 서스펜션과 앞바퀴의 체결을 강화하는 등 무상수리 조치하기로 함.
-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신신스포츠(☎ 02-2254-0091)에 연락하여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함.

< 마라톤 킥스쿠터 MA-01 무상수리 안내 >

1. 대상 제품

- 조치대상 : 2017년 판매 650대
- 수입·판매사 : (주)클라우드파이브·신신스포츠



2. 조치 사유

- 앞쪽 서스펜션과 앞바퀴 고정부위 풀림으로 인한 앞바퀴 이탈 우려

3. 조치 방법

- 대상 제품 구매 소비자는 신신스포츠에 연락하여 무상수리 받을 것
- ※ 택배비 등 제반 수리비용 사업자 부담

4. 문의처

- 신신스포츠(☎ 02-2254-0091)